

글. 이종민\_ Lee, Jong-min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원

# 그럼, 우린 어떡하죠?

## Then, what should we do?

‘영화의 전당’ / 현물의 건축, 면적 약 32,000㎡, 163m 캔틸레버로 기네스 등재, 부산 해운대 센텀지구, 공사비 약 1,600억 원, 세계적 건축집단 ‘큐 힘멜브라우’ 설계...

의뢰받은 주말주택 / 아직은 상상의 집, 면적 85㎡, 밀양시 산내면, 공사비 약 8000만 원 예상, 한국의 무명 건축사 설계 예정...

수치적 차이가 극명하다. 그림에도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절실한 집이 될 것이므로 건축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둘은 대등하다.

현장에서 논함이 옳았다. 그림에도 우린 그 장소를 미팅 장소로 선택한다. 나로서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지만, 그들 또한 좋은 건축에서 영화와 음식을 즐기는 부가의 즐거움이 있으므로 흔쾌히 동의한다. 우리란 그들 다섯 쌍의 부부와 전문가로서 자문해야 하는 나를 말한다. 대학 시절 동아리 멤버인 그들이 여태까지 나눈 정으로 성이 차질 않아서 모여 살 궁리를 한 오래된 작당(?)은 많이 진척되어 벌써 땅 구입이 끝났다고 전언했다. 이 시점에 그들이 내게 묻고 싶었던 것은 현실적인 답이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자면, 전원생활에 적합한 건축 구조는 무엇인지? 시공에 돈은 얼마나 드는지? 보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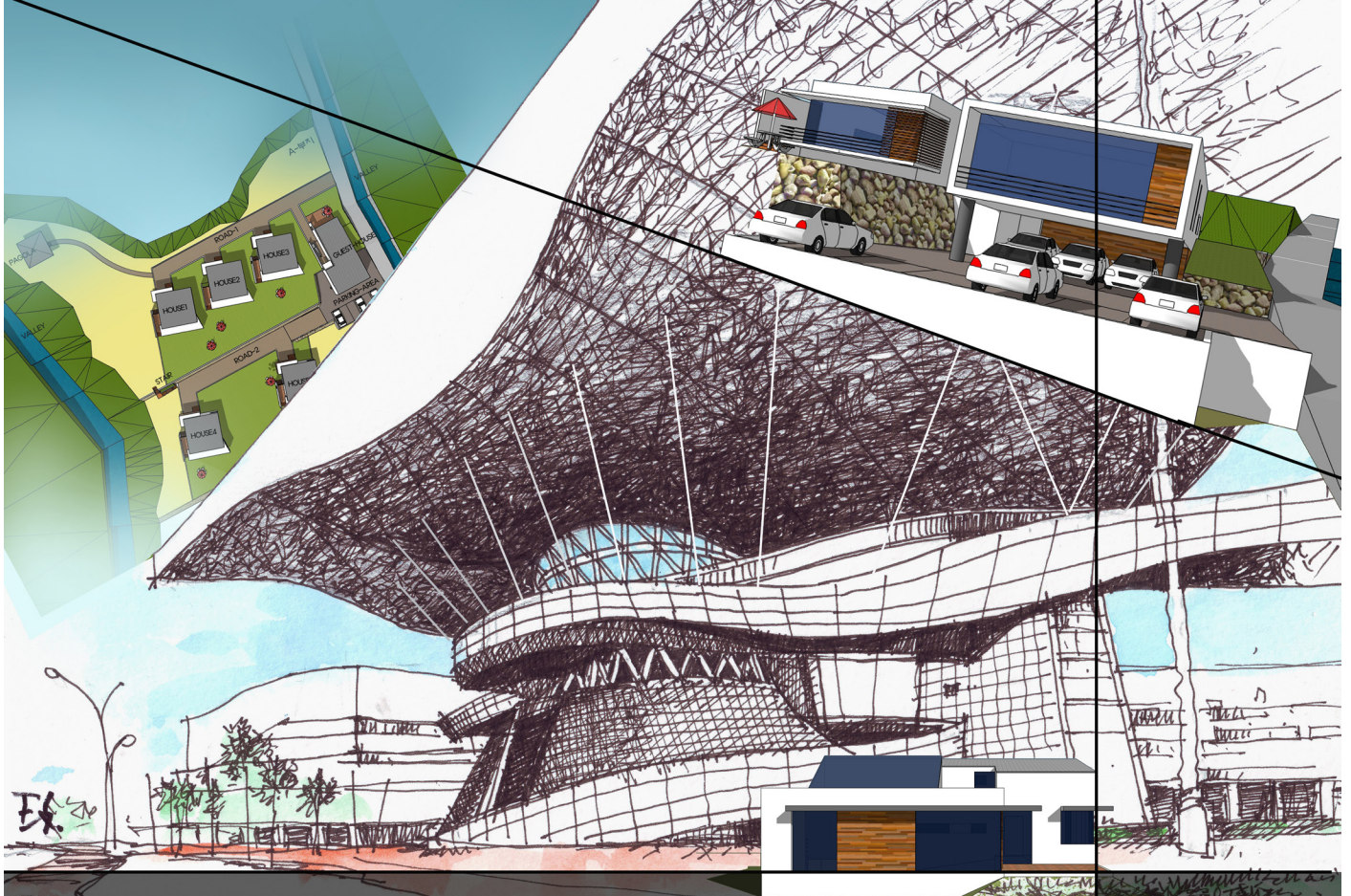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오히려 느긋하기로 작정한다. “주말에만 사용하기는 아깝지 않나요?”, “집을 크게 지으면 쉬이 집에 정이 떨어집니다.”, “오랜 기간 지을 궁리를 하십시오. 집 짓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 가급적 오래도록 붙잡고 계시는 게 이득 아닙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고 말 것이다.

커피숍과 같이 익숙한 공간을 두고 어수선한 대공간을 대화의 장소로 선택한 것부터 경험치 못한 공간을 체계적 하기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 리 없다. 그곳은 천정 높이가 20여 미터는 족히 뒹직하고 정면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있어서 산만하기도 했을 것이며, 주변에서 끌어모은 의자도 들쭉날쭉, 무엇보다도 큰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의 공명 또한 생경하여 비현실적 이기까지 하였다. 말하자면 그들이 그리던 사방 4m, 높이 2.5m의 거실 공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공간에 우리가 건축을 전제로 잠시 거(居)했던 것이다.

말이 시작되었다. “이 급조된 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자리임에도 우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부산세관 별관', '김선희 한의원', '부산 은애학교', '윤부현 맥' 등이 있으며, 등단 수필가와 건축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 '말을 거는 거리'와 '해운대 인생학교' (공저) 등이 있다.



리는 왜 불편 없이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건 이곳이 우리에게 주는 공간감 때문입니다. 공간이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건 사람이고 공기이며 온도이고 색깔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편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모인 이유는, 경험한 바 없는 아주 생경한 장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으실 집은 크기나 모양이나 편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며, 내 주위의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며, 새로운 공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창의적으로 바꿀 일입니다. 그게 공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그들보다 내가 먼저 취해 두서없는 공간론은 계속되고 있었다. “집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고 말 것입니다. 건축사는 그런 여러분에게 많은 경험을 들려 드리면서 삶을 개선할 가능성에 대하여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좋은 건축은 대화의 양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좋은 건축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려는 것, 그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간은 점점 더 열기에 썩어 갔다.

침묵과 열기가 반복되는 순간이 수차례 중첩되어 흐른다. 근 삼십년 책이나 잘된 공간을 체험하여 온 나는 내 의지를 다지는 또 하나의 순간이었겠지만, 어쩌면 그들에게는 건축 공간에 관한 최초의 자발적이고 끝이 없는 상상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모르긴 해도 이사를 할 때마다 집의 구조와 평수 가격을 비교해 보면서 최종으로 “그래 결정했어!” 하곤 했던 것이 건축에 관한 일상적이고 최종의 선택이 되곤 하였으니, 그들에게 이러한 순간이란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이지 싶다.

혹은 내가 실실 흘린 공간론을 대중에 대한 전문가의 연민이라 느

껴도 좋다. 그들이 내 말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상상으로 잠시 혼몽해 지는 순간을 어찌 연민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의 연민에 지독한 반성이 끼어 있는지 그들은 몰랐을 테다. 흔히 둘러대었듯이 개발의 시절을 빙자한 흔하디 흔한 오류였다 하더라도, 근 삼십여 년 몇 개 모델 제시를 볼모로 “이게 건축이오.” 라며 선택을 강요해 온 나의 타성을 그들이 어찌 알까? 과연 건축은 선택하는 것이었을까? 모델을 던지고 조언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의 열망에 가까이 가는 일. 그게 건축임을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잊었던 게 아닐까?

그럼에도 오류를 범한 건축사의 불편과 건축을 근원으로부터 생각하라는 예상치 못한 강요를 당하는 건축주의 갈망이 버무러지려는 순간은 별처럼 오롯하고 빛과 같이 참되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빌어 앞으로의 공간 하나를 야근야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와중에 현실로 돌아오라는 듯이 어느 분이 말했다. “아~ 헛갈려. 선생님,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요?” 올 게 왔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했다. “당신들의 열망을 보편적이지 않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라건데, 오늘의 자리가 일억 칠천만 원짜리의 공간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팔천만 원의 공간을 일대일로 비교해 보는 당당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몇 달이 지나 각자의 다른 그림 하나씩을 내게 던져 주는 순간이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개의 그림을 조합하는 일에 나는 기꺼이 골몰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끝내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본다. 도심의 하늘에서 애써 별을 찾는다. 오늘의 별은 그들의 별이 되어야 타당하겠지만, 또한 나의 별이 되기를 바란다. 암흑에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이 내게 도달한다. 전에 없던 일이다.